

<총장 칼럼>



결단하는 주체로서 인간

권호덕 총장

우리는 20대 국회의원을 뽑았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國政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과 정당으로 인해 참으로 답답한 일을 괴로움 속에서 지켜보며 지나왔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하게 처신을 했는가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일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큼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가 벌어졌다. 한 정당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국회의원들 상호간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매우 심각한 논쟁이 오갈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가 애국적인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애국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 동안 한국국회의 문제는 자기 당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보다 먼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이 지난 총선 때 나름대로 결단하고 투표했기 때문이다. 한 번의 결단은 이토록 많은 영향을 끼치며 기쁘게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명백하게 가르친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로봇은 입력된 내용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인간은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 성경은 아담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함을 통해 온 인류를 수렁으로 몰아넣었음을 가르친다. 로마서는 아담의 실수를 “한 사람의 범죄로 …”라고 말하며 매우 원통한 듯이 묘사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주목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를 번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했음을 읽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후에 그에게 주신 복을 보면 이 결단은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救贖史에서 큰 획을 긋는 일이었다.

반면에 성경은 잘못된 판단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보고한다. 히브리서는 “히 12:16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잘못된 판단을 경고한다. 이것은 예수를 은 30양으로 보고 팔아버린 가롯 유다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려고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하자 그 당시 독일 국민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 그에게 정권을 넘긴 결과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독일 국민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역사상 최대의 테러집단을 만들어준 것이다.

우리는 마르크스와 손잡은 레닌이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은 뒤 인류에 끼친 해악을 알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다급했던 당시의 국민들은 지주의 재산을 빼앗아 동등하게 분배해 준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이 지난 한 세기 역사이다. 소련이 무너지기 이전에 그 곳을 여행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물질을 추구하던 그 지역에 물질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감각세계를 부인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감각할 수 있는 물질만을 중시하던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알콜이나 마약 중독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다. 70년간 공산주의는 인류의 정신마저 망가뜨리고 무너진 것이다. 그 주민들은 잘못 판단하여 물질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다. 이런 일은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에게 거짓 선전하여 북한 주민들을 영육간에 망가뜨린 것과 같은 일이다. 지금 이런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아무도 없다. 치명적인 손상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국민들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권한을 투표에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사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검토하지 않은 채 달콤한 선전에 속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을 본다. 자유인이란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자유인이 참으로 그립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바른 판단이 필요할 때가 참으로 많다. 또 개 교회, 노회 나아가 총회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회원들의 결단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 결단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잘잘못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따라오는 엄청난 손실을 아무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계산하며 결단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교회 문제의 결정에는 우선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맞는 말일까, 나아가 그것이 어떤 개

인의 기득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결단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심판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의 투표용지는 전형적으로 글자 위주의 딱딱하고 단조로운 디자인입니다.



아르헨티나 라울 알폰신

1981~2010년 주요 국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불비례성

자료: 아렌트 레이파르트 <민주주의의 양식>(2012년), 단위: %

국가	불비례성	선거제도
네덜란드	1.08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덴마크	1.6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스웨덴	1.95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오스트리아	2.0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독일	2.55	혼합형 비례대표제
핀란드	3.34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일본	10.50	혼합형 다수대표제(중대선거구제)
미국	13.35	단순다수제
프랑스	19.56	결선투표제
한국	21.97	단순다수제+일부 비례대표제



미국 17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 링컨과 햄린

<학교소식>

1. 본교 신대원 학생들은 4학자 이상 원생들이 돌아가며 한 주간에 한 번씩 설교하고 교수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 2016년 4월 14일 신대원 전원은 야외 MT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 순서로 **신원예뿔**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담임목사님 이재성 교수님은 이 교회의 역사와 순장교단의 역사적 배경을 잘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배 목회자로서 바른 목회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신원예뿔교회가 대접한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고난 다음 보라매 공원으로 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습니다.
3. 2016년 4월 14일 본교에서는 본 교단 장로 고시와 목사후보생 고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4. 본교 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다른 교수들이 4월 19일 오후에 루디아장학회 집회가 열리는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5. 도서관은 학교 특성화에 따라 해당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특성화는 성경 본문을 잘 주석해서 설교를 잘 만드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구약주석>

에스겔서 주해(1)



박영복 교수¹⁾
(구약학, Ph.D.)

에스겔 1:1-28

우리에게 에스겔은 선지자로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마도 사독 계열이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대제사장 가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²⁾ 따지고 보면, 1절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이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부시’라는 제사장이 적어도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또한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³⁾ 이였다는 사실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 한다.

이런 배경에서 1절의 ‘서른째 해’를 에스겔의 나이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이 시점은 아주 절묘하다. 민수기 4장에서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할 때, 30세에서 50세까지 복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나이 30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것이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 25세의 에스겔은 아직 정식으로 성전에서 봉사도 하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배우고 성전에서의 제사장으로써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웠을지라도, 에스겔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 온지 5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25년간 제사장으로 교육받아 온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할 때가 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다.

1장의 모든 내용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장면들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아마도 에스겔이 관찰하는 순서대로 묘사하는 것 같다. 에스겔은 먼저 북쪽 하늘에서 다가오는 어떤 번쩍이는 것에 주목하였다(4절). 그것이 무엇일까 자세히 관찰한 결과, 거기에는 네 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있고(5절), 네 면의 각기 다른 얼굴들이 있는데, 사람과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10절). 이처럼 ‘4’라는 숫자가 강조되는 것은 역동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겔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치고 있는 자들인데(26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사방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좌는 권위를 상징함과 동시에 정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역동성의 이미지가 보좌를 받치고 있는 이들 네 생물들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에스겔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이 뿐만은 아니었다. 그 생물들의 모양이 달아오른 쇠 같기도 하고(4절), 타는 숯불과 헛불 모양이었으며 광채가 나며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13절), 또한 그들은 번개처럼 왕래하였다(14절)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바퀴가 있었고(15절), 거기에는 눈이 가득했다(18절). 참으로 기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마치 눈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처럼, 이들의 특별한 모습을 묘사하는 에스겔의 표현은 쉴 틈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21절의 중요한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들의 대한 관찰도 서서히 마무리 한다. 이들 네 생물들과 바퀴를 움직이는 주체는 다름 아님 바퀴 가운데에 있는 ‘생물의 영’(20절)이었다. 그 ‘영’(Spirit)이 가고자 하면 가고 서고자 하면 서게 되는 것을 에스겔은 발견하였다. 하나님의 보좌의 역동성은 바로 이 ‘영’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

1) 편집인 각주: 박영복 교수는 화란자유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본교에서 구약학 강사로 일하고 있음.

2) 크리스토퍼 라이트, 『에스겔 강해』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4), p.26.

3) 왕하 24:14

22절부터는 에스겔의 관찰이 네 생물로부터 점차 위로 이동하게 됨을 알게 된다. “그 생물의 머리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고 두렵게 느껴졌다. 그 때, 그 궁창위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 생물들은 날던 날개를 내리고 멈추어 섰을 뿐 아니라 날개 소리를 없앴다(25절). 뭔가 사건이 일어날 듯한 순간에, 에스겔은 그 궁창 위를 바라보게 된다. 거기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고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한 분이 계셨다(26절). 27절에서 에스겔은 그 분을 이렇게 묘사한다.

“27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에스겔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지만, 비록 궁창을 통해서 본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감격스런 장면이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에스겔의 관찰을 통해서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은 사방에 퍼진 하나님의 광채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드디어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즉시 피조물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할 태도를 취한다. 에스겔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분의 음성을 듣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현현(顯現)에 에스겔은 너무나도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랐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내게 오신 것이지?’ ‘하나님께서서는 도대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에스겔 2장이 이러한 궁금증에 답을 해 줄 것이다.

<조직신학>

하나님은 누구신가? (13)

삼위일체론 강의(6)

이동영 교수(Dr. theol.)



내재적 삼위일체의 구성의 원리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사변하는 것 보다는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논구하는 까닭은 경배하기 위함이고 사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배하기 위하여 사변(사색)하는 것이지, 사변하기 위하여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학적 ‘이론’(Theorie)과 ‘실천’(Praxis)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송영(찬양)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면서 내재적 삼위일체의 구성의 원리

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삼위일체의 내적 구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성부: 기원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성자와 성령의 기원이시고 이 양자의 신성의 원천(fons deitatis)이시다 – 성부 됨(paternitas): 비출생성(αγεννησία) [성부의 비공유적 속성]
- 2) 성자: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다 – 성자 됨(filiatio): 출생성(generatio in aeterna; generatio passiva) [성자의 비공유적 속성]
- 3) 성령: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 분이다 – 성령 됨(spiratio): 발출성(spiratio in aeterna; spiratio passiva) [성령의 비공유적 속성]

성부로부터 성자의 영원한 출생

성부는 기원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성자와 성령의 ‘신성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신성의 원천이신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제 2위격의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영원한 출생의 방식으로 성부와 신성을 공유함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여기서 성자가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성부로부터 성자의 출생이 어떤 특정한 시간의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영원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부로부터 성자의 출생이 영원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부, 즉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 또한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부가 성부인 것은 아들, 즉 성자가 있어서 성부인데,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아들을 낳으셔서, 아들을 낳으신 그 시점에서 성부가 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 전에 영원히 낳으셨기 때문에, 성부는 영원한 성부이고, 성부로부터 출생한 성자 또한 영원한 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어떤 특정한 한 시점에서 성부가 성자를 낳음으로서 성자, 즉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성부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존재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성자의 출생 또한 영원한 출생이므로, 어떤 한 특정한 시간상에서의 출생의 기원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시기에, 존재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시작을 가지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며(generatio activa), 그러기에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태어나십니다(generatio passiva). 그러므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만약 성부가 한 특정한 시점에서 성자를 낳으셨다면, 성자는 시간 속에서 태어난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진 성부 호칭은 한 특정한 시점에서 성자를 낳으시고 난 후에 부쳐진 호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일 수 없고, 아들 또한 영원한 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견해는 니케아 공의회를

전후해서 성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로 창조된 성부의 피조물이며,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불리어진다고 주장한 아리우스(Arius)와 그의 추종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용인될 경우 성자는 성부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일 수 없게 되며 성자는 피조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satisfactio)의 사건이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대속의 사건이 아니라, 한 의로운 선지자의 죽음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는 태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으며, 그러기에 성부, 즉 아버지 또한 아버지가 아닌 적이 있었다는 아리우스의 견해를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구원론적인 이유로 인하여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부로부터의 성령의 영원한 발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부는 기원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성자와 성령의 ‘신성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성자가 신성의 원천이신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시라면, 성령은 신성의 원천이신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출(processio; spiratio)하신 분이십니다. 제 3위격의 하나님은 발출의 방식으로 성부와 신성을 공유하므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성을 가진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이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출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떤 한 특정한 시점에서 성부로부터 발출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성부로부터 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는 성령을 발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며, 성령 또한 성부로부터 발출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는 영원히 성령을 발출하는 분이시며(processio activa), 성령 또한 영원히 성부로부터 발출되는 분이십니다(processio passiva).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특정한 한 시점에서 성부가 성령을 발출함으로써 성령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성부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존재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의 발출 또한 영원한 발출이므로, 어떤 한 특정한 시간상에서의 발출의 기원을 가지지 않는다. 즉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 분이시기에, 존재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시작(시점)을 가지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각각의 비공유적 속성으로 삼위는 구분되며, 삼위가 가진 공동의 본질로 인하여 삼위는 하나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 성부의 비공유적 속성: 성부 됨(patemitas) - 비출생성 및 신성의 원천성

삼위 중에 성부만이 가지는 비공유적 속성, 즉 성부 됨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비출생성 및 신성의 원천성입니다.

오직 성부만이 신성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 신성의 원천성은 삼위 중 성부만이 가지고 있는 성부만의 속성, 즉 성부의 비공유적 속성인 것입니다. 만약 성부께서 성자와 신성의 원천을 공유하신다면 성자 또한 제 2의 성부라고 불리어 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성부와 성자 간의 위격의 구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성의 원천은 성부가 성자나 성령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의 신성의 원천으로부터 성자는 (영원한) 출생의 방식으로 성부와 신성을 공유하시며, 성령은 (영원한) 발출의 방식 성부와 신성을 공유합니다.

2) 성자의 비공유적 속성: 성자 됨(filiatio) - 출생성

오직 성자만이 출생하십니다. 이 출생의 속성(출생성)은 삼위 중에 오직 성자만이 소유하고 있는 성자 됨의 속성, 즉 성자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시기에 성자(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이러한 출생의 속성을 성령과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자가 성령과 함께 출생의 속성을 공유한다면 성령도 제 2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자와 성령 간의 위격의 구분이 무너지게 되므로, 성자는 성령이나 성부와 함께 출생의 속성을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의 방식으로 성자는 성부와 신성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 성령의 비공유적 속성: 성령 됨(spiratio) - 발출성

오직 성령만이 발출하십니다. 이 발출의 속성(발출성)은 삼위 중에 오직 성령만이 소유하고 있는 성령 됨의 속성, 즉 성령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출하는 분이시기에 성령(내쉬어진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러한 발출의 속성을 성자와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령이 성자와 함께 발출의 속성을 공유한다면 성자도 제 2의 성령이라고 불리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과 성자 간의 위격의 구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자와 더불어 발출의 속성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출의 방식으로 성령은 성부와 신성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 이십니다.

4) 요약: 성부, 성자, 성령은 비공유적 속성으로 구분되며, 동시에 동일한 신성을 공유함으로,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같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성부의 ‘신성의 원천성’, 성자의 ‘출생성’, 성령의 ‘발출성’을 삼위의 각 위격이 가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비공유적 속성외의 모든 속성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공유하십니다. 즉 동일한 영광, 동일한 거룩, 동일한 전능, 동일한 전지, 동일한 사랑 등등).

비공유적 속성으로 인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은 명백하게 구분되지만, 성자와 성령은 각각 출생의 방식과 발출의 방식으로 성부와 신성을 공유하기에 삼위는 ‘동일한 본질’(homousios)을 가지신 하나님, 즉 한 하나님(같은

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말은 세 위격이 밀가루가 반죽되어 하나를 이룬 것과 같은 숫자적인 단일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신성의 동일성, 즉 본질의 동일성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란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신성의 본질을 세 위격들 밖에 존재하는 추상적 보편개념으로서의 하나의 실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본질은 위격들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신적 본질은 추상적 보편 개념으로 생각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위격들 밖에, 위에 그리고 배후에 있는 하나의 실체(substantia)라고 생각될 수도 없다. 신적 본질은 위격들 안에 있으며, 각 위격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수적으로가 아니라] 동일하다. (...) 위격들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며(homousioi), 본질에 있어서 단일하며(monoousioi), 동일한 존재(tautoousioi)이다. (...) 단 하나의 동일한 신성이 삼위 모두 안에 존재하고, 특별히 각 위격에 존재한다”(바빙크, 『개혁신학』, 제 2권, 375)

그러므로 바빙크가 강조하여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위격에 있어서 ‘세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unum)인 것입니다(바빙크, 『개혁신학』, 제 2권, 380).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unus)이 아니라 하나(unum)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며,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구별된 주체들[성부, 성자, 성령]이다”(바빙크, 『개혁신학』, 제 2권, 382)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분 하나님(der Einer Gott)이 아니라 한 하나님(der selbe Gott)이신 것입니다.

<신약주석>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바울의 회심과 소명(2)



장석조 교수
(신약학, 성경적설교연구소 소장)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종말론적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 종말론적 구원 사역은 세례 요한에 의해 준비되고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전수받아 그 사역을 수행했다. 사도들의 사역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회심 문맥(8-11장)에서 나타난다. 바로 그 중심에 바울의 회심이 놓여 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 후 곧바로 예수님이 주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소명을 수행한다. 누가는 바울의 회심과 소명 사이에 바울의 회심을 보다 명백하려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초자연적 경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한다(9:7-9). 바울이 빛으로 인

하여 시력을 상실한 것은 스데반이 인자를 본 것과 대조되며(7:56), 회심의 객관성을 지지해준다.

바울의 회심은 신적 인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 의해서도 공인된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 전달한다(9:10-16). ‘제자’ 아나니아는(10절)은 바울이 ‘행할 것을 이를 자’(9:6)를 회고시키며 두 문단을 연결시켜 준다. ‘주’의 2회 반복과 아나니아의 ‘주’호칭은 회심의 핵심 요소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경험과 같은 것을 경험한 아나니아가 사울의 회심에 대한 신적 공인자임을 강조해준다.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11절)과 3일간의 식음 전폐 등 일련의 행동들은 자신의 회심을 다메섹교회 안에서 인증받는 것과 연결된다. 안수를 통한 치유는 회심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소명을 위한 준비를 예고한다(9:17-19가).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신적 명령을 받고도 바울의 꺾박 소문으로 인하여 그의 회심을 공인하지 않으려고 망설인다. 아나니아의 망설임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주님의 비전에 망설이는 것을 예고한다.

바울의 소명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15절)으로 명시된다. 이것은 그의 회심을 확증케 한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의 회심을 더 확증케 하는 기능을 한다.

바울의 회심과 소명은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하는데서 확증된다(9:17-19가). 아나니아가 주님의 비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형제’(17절)라고 부르는 것은 다메섹교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참된 회심을 가리킨다. 여기서 안수는 다시 보게 하는 치유의 수단으로서 회심을 공인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바울은 안수로 육체적으로 다시 보는 치료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17-18절). 성령의 선물은 신자의 표지요(2.33, 38) 동시에 증인으로 소명받는 수단이다(1.8:3.4; 26.16-18).

바울의 회심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는 것으로 더욱 분명해진다(9.19나-31). 사울이 며칠간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19)은 바울의 회심이 아나니아에 의해서만 아니라 다메섹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인증되었다는 표시이다. 사울은 회심의 공인에 이어서 곧바로 소명에 순종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20절). 그 선포내용은 시 2.7을 부활/승천하신 예수께 적용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행13.33)를 예고한다. 그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그의 회심과 소명을 확증해 준다. 바울이 소명에 순종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듣는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은 꺾박의 주제와 함께 그의 회심 뿐만 아니라 소명을 강화시켜 준다.

사울이 소명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항상 회심이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사울이 소명에 순종하는 2개의 기독교적 증거(20, 22)는 놀람의 부정적인 반응(21

절)과 교차대구를 구성하면서(19나-22), 사울의 회심/소명을 확증하는 기능을 한다. 사울이 복음전파로 인한 거절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 얻게 된(22절)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를 가리킨다(17). 여기서 성령은 회심을 발생시키는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회심을 확증시키는 사역을 하고 더 나아가 소명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효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19나)과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 것(26)은 자신의 회심을 인정받으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다메섹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그의 회심(‘제자 됨’)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예루살렘에서의 회심과 소명에 대한 인 증은 제자 바나바를 통해서 수행된다. 그는 사울의 다메섹비전과 사명수행에 기초하여 제자들과 함께 복음증거사역에 동참하게 공인해준다(26-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공인과 소명에 따른 복음사역은 불가피하게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험에 처할 정도로 핍박 받게 된다. 바로 그 핍박은 다소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다소는 안디옥사역을 준비하는 장소가 된다. 여기서 핍박은 또 다른 곳을 향한 소명을 위한 부정적 수단이다. 리우스 캄스는 요약구절(31)을 베드로의 증인사역에 포함시키지만 다른 요약구절과 같이 이 구절은 바로 앞에 있는 바울의 회심과 소명의 결과를 회고하는 주기능을 가리킨다. 즉 바울의 회심과 소명으로 인하여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베드로의 사역을 예고하게 한다. 그러므로 31절의 요약문은 우리가 9장을 더 넓은 문맥의 구조분석에서 보도록 유도한다. 다음호에서는 바울의 회심과 소명이 나타나는 사도행전 22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신앙시인의 수필>



단 하나의 자화자찬

이경아 박사(신원예닮교회)

어느 날, 샴푸가 뚝 떨어졌습니다. 사라 가니까 없었습니다. 하여, 몇 주를 참고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아두었던 샘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쓰던 샴푸에 길들여져 있어서인지, 머리모양이 제멋대로이고 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많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사용하던 비누나 샴푸, 또는 화장품이 떨어졌을 때마다 새로 장만하려고 하면, 그곳 점원들은 말했습니다. 제가 찾는 그것은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이제는 만들지 않는다고, 절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을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 값은 그동안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이것저것 뚜껑을 열고 쿵쿵거리며 보아도, 그 냄새와 액체의 색깔 등 마음에 드는 샴푸가 없었습니다. 값은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저는, 다른 것도 거의 마찬가지로 지지만, 그중 특히 생활용품은 비싼 것을 사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생활용품도 소모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젠 아무거나 사야 하나보다 생각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 마을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섰는데, 옆에 선 아가씨 머리에서 싱싱하고 상큼한 비누냄새가 났습니다. 자정 무렵이니 그 아가씨가 방금 머리를 감고 나왔을 리는 없었습니다.

아, 저는 정말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하다가는 큰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살짝 눈웃음을 치면서, “저어- 냄새가 좋아서 그러는데요, 샴푸 뭐 쓰세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 웃으면서 자신이 쓰는 샴푸 이름과 용기 생김새를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밤에 당장 검색을 했습니다. 샀습니다!

인터넷으로 당장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그 샴푸를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때, 이를 테면 고개를 빨리 돌린다고 할 때면, 거짓말처럼 그 상큼하고 싱싱한 비누냄새가 살포시 날아왔습니다. 가끔 전철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쿵쿵거리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샴푸에 오래도록 길이 든 머리카락은 한참동안 그 샴푸를 낫설어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랜 기간 머리모양은 제멋대로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샴푸냄새가 가끔 풍겨올 때면 뉘히 모르게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아침,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씻고 행구어내는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얼마나 길들어있을까. 그 말씀의 향기가 나의 움직임 따

라 주변인들에게 발산되고 있을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저의 숨도 삶도 가치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하여, 매일, 무시로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말로, 표정으로, 손짓으로, 모습으로...

그뿐 아닙니다. 컴퓨터를 켤 때도, 메일을 열 때도, 중요한 문서를 볼 때에도, 써놓은 작품을 다시 보려고 할 때도, 그 때마다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윈도우도, 메일도, 문서도, 작품도, 비밀번호가 다 그분을 향한 저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정한 건 컴퓨터가 제게로 온 첫날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물론 보안을 위해 얼마간 한 번씩 변경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무척 오래 이어진 제 신앙고백의 형태입니다. 매일, 어떤 때는 하루 몇 번씩 되풀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도 귀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컴퓨터를 켤 때마다, 메일을 열 때마다, 중요한 문서를 봐야 할 때마다, 써놓은 작품을 수정하거나 퇴고할 때마다, 잠시 숨을 가다듬으며, 정말 잘했구나... 잘했어 이경아... 하며 제가 저를 칭찬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신약주석>

요한복음 산책(7)

새 시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이재성 교수(신약학)

요한복음2:13-22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행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만한 행동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사용 제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광경을 보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엮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분노하셨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제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행동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 당시에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때 바칠 제물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갈수가 없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temple tax)를 내야만 했다. 따라서 제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일은 멀리서 오

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필요했던 일이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성전에 멀리 떨어진 기드론 골짜기(Kidron Valley)라는 곳에서 행해졌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느새 성전 바깥이 아닌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성전 울타리 안에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설치된 마당이 있었다. 그곳을 보통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성전 바깥에서 제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주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장소를 모두 차지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유일한 예배장소조차도 빼앗겨 버리고, 예배의 기회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종교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상인들로부터 자리를 내주는 조건으로 자릿세를 받기도 하고, 또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하는데 돈이 예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고, 원래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 즉 비즈니스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실 부 밖에 없으셨던 것이다.

정신이 사라진 자리!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신 것은 바로 형식만 남아 있고, 그 근본적인 정신과 의미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시한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23:23)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할 성전에서마저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정신과 온데 간데없이 오직 형식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다.

그런데 종교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의 사업을 망치는 훼방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18) 지금 유대인들 즉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한으로 성전 안에서 심판하는 행위를 하는지 기적 즉 표적을 보여 달라고 추궁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19).

즉 그들이 그들의 성전을 다 헐어버리면 예수님께서 3

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종교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20). 실제로 당시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짓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동안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요한이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준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21,22).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이다. 제자들도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가능했다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성전이란 원래 동물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옛 성전은 그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다. 즉 이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와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기적(miracle)이라는 말 대신 표적(sign)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표적이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의 발생이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믿도록 도와주는 사건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지닌 기적이라야 진정한 표적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채찍을 만들어 심판하시는 행동은 표적이 되는 기적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세상에 타난 최고의 기적, 표적은 무엇인가를 예표한다. 그것은 성육신-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전이 우리 안에 직접 자리를 잡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성전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 어떤 방해나 걸림돌도 없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표적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지 못한다면 이제

는 더 이상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 살아간다. 이 우주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적이며, 또한 순간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표적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표적은 없다. 성령님은 결국 이 표적을 우리 안에 확인해 주시고자 늘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지상(紙上)설교>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고후 11:23-28

김준범 목사
(양의문교회 담임, 고려개혁신학연구원,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신학 교수)

제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써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8문답은, 하나님의 전능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유익을 주는지를 묻고 있는 귀중한 문답입니다.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에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며, 미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서, 그 위로와 유익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바로 알고 믿는 신자들은 무엇보다 역경 중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참으로 많은

역경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고후 11:23-27).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의 섭리를 굳게 믿었기에, 그 모든 역경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이자 전도자와 설교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곤고하게 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기에 안심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과 위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곤란한 일을 만나고 상처를 받으며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역경은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인격이 더욱 온전하고 구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에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역을 믿는 우리들은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만사를 그의 영원한 작정과 뜻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 순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대가족과 짐승의 큰 떼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압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

이다”(창 32:10)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에서가 야곱의 가족과 재산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기업을 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창 33:5)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큰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말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역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래 일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장래 일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자기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편안한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전멸을 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왕후 에스더는 사흘 밤낮을 금식한 후에 아하수어로 왕에게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왕궁 안 뜰로 들어갔다가 금홍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16)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살게 될 것인지 죽게 될 것인지, 자신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쪽을 택한 뒤에 나머지 장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전능의 섭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해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는 단편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사랑과 능력에 연결시켜 통합적인 사고(思考)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피동되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으며, 조금 형통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안정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평안과 소망과 감사와 확신과 위로를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다면, 역경에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에 소망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인내와 감사와 소망과 확신 가운데 범사에 그의 뜻을 따라 삽시다.

<신약주석>



골로새서 해석(5)

최흥식 교수
(Ph.D., 신약학)
(헛불신학대학원대학교, 재건 측)

골로새서 2:1-7절

본문개관

개요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인 1-5절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노고에 대한 것이다. 둘째 단락인 6-7절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는 바울의 권면이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노고 - 1-5절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을 위한 자신의 헌신적 사역을 말한 후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의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수고를 골로새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다. 그 노고의 목적은 성도들이 마음에 힘을 얻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설 때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고 그 것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음을 가르침으로써 이단적 가르침에 설득되지 말 것을 권면한다. 바울은 그럴싸한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위하여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달을 것을 권고한다. 바울은 몸은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확고할 것을 진정으로 기대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 6-7절

본문은 골로새서의 본문의 주제를 제시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비밀이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에바브로를 통해 그들의 주라는 신앙 전승을 물려받았음을 상기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은 성도들은 주와 연합하여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으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성장의 원천이며 기초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

절별 주해

1절: 바울은 자신 또는 동역자가 세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였으며 노심초사하였다 (고후 11:28-29). 그는 자신이 아니라 에바브로가 사역한(골 4:13)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로부터 약 16km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고군분투하였다. 자신이 직접 전도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해 개인적 친분이 없는 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바울은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했는데(고후 1:8 참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신을 이해하여 그의 교훈을 따라 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한 것이다.

2절: 골로새 교회 그 주변 교회들의 안정과 신앙 성숙을 위한 바울의 고투의 목적은 그들이 이단적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해 서신으로 권고하여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갈라디아서 참조). 그들을 위한 바울의 헌신적 노력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위안을 받고”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주기 위함이다. 그들이 용기와 힘이 생기면 사랑 가운데 연합할 수 있다. 사랑은 성도 간의 연합의 끈이다(골3:14). “연합하여”는 서로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엡 4:16 참조).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가져다주는 풍성함을 가지는 것이다. 바울은 다시 한 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임을 말한다.

3절: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역사와 계시를 베풀셨고 구원의 다양한 축복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요 근본이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고전 1:30; 골 1:15-20 참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부이다(빌 3:7-8).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시고(골 2:9)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므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거짓 철학을 따르지 말 것을 바울은 권고한다.

4절: 바울이 2장 1-3절 말씀을(“이것”) 말하는 목적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교묘한 말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골로새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처음으로 골로새 교회의 바울의 대적자(들)를 언급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교묘한 말이며 헛된 속임수라고(골 2:8) 바울은 비판한다. 바울은 아무도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러면 바울의 대적자(들)는 누구이며 무엇을 가르쳤는가? 바울은 그 가르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 2장 8절
2.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 2장 16절
3.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 2장 18-19 상반절
4.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 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 2장 20-22절

골로새의 “철학”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한 견해가 있다. 하나는 영지주의적 혼합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유대적 가르침이다. 근래에 여러 학자들이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 철학은 유대교의 음식법, 절기법, 정결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대교적 요소를 지닌 혼합주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골로새에 회당이 있었으며 골로새 교인들 일부가 이 회당 출신이며 아직도 교회와 회당 공동체 둘 다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철학은 회당 출신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인들(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포함)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폄하하고 유대교를 강변하는 유대적 가르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5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지만 사정상 가지 못하고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심령은 그들과 함께 있음을 확인시킨다(고전 5:3 참조). 바울의 편지가 그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도적 임재의 표현수단이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싶은 일은 그들의 흐트러짐 없는 정돈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함이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한발치도 움직이지 않는 임전무퇴의 확고한 전투자세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6절: 바울은 이 절에서 골로새서의 본론을 시작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함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그 자체이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신앙 전승을 물려받았음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한 교회의 머리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권고한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이지 헛된 “철학”이 아님을 암시한다. 신앙고백과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7절: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시라는 신앙고백이 신자의 삶의 원천이요 기초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으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 상태임을 상기시킨다. 성장 동력인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가 내려졌으므로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암시한다. 또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확고히 지속적으로 세워질 때 거짓 교사들의 헛된 속임수에 의해 넘어지지 말 것을 권고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소속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믿음이다. 이 보증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한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과 에바브로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 갈 때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무너지지 않고 보증된 믿음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한다.

<선교신학>



4. 영적 전쟁의 약점(弱點)

배춘섭 교수
(서울성경대, 선교학 Ph.D.)

티모티 워너(T. Warner)는 정령주의(animism)의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⁴⁾ 첫째는 이 세상은 마나(mana)라는 비인격적인 영적 능력으로 채워져 있다. 둘째는 이런 우주적 영적 능력은 사람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게 통제될 수 있다. 셋째는 죽은 자나 조상의 영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동식물 등의 환경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넷째는 영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는 무당(Shaman)의 존재는 정령주의 신앙이 만연한 지역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는다. 또한 게일린 반 레넨(Gailyn Van Rhee)은 애니미즘을 이렇게 정의한다. “(애니미즘은) 비인격적 힘이나 인격적인 영혼 등이 사람들이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앙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나 영혼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조작함으로써 미래의 사건과 행동을 결정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신앙이다.”⁵⁾ 이와 같은 정령숭배적 세계관은 SLSW의 저술들을 일부 살펴볼 때에 상당한 관련성과 증거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⁶⁾

하지만 창세기의 하나님은 정령주의와 다신론이 아닌 전지전능하시며 주권자로서의 유일신으로 묘사된다. 애니미즘은 해, 달, 별, 동물, 식물 등 모든 자연만물을 신으로 여긴다. 이는 범신론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창세기의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만물 중의 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으로서 선포된다.⁷⁾ 고대근동의 신들은 모두 만신들 가운데 한 신에 불과했다. 애니미즘

권에서 그러하듯 구약성경은 많은 신들을 단순히 지역신으로 그려낸다. 산의 신, 계곡의 신, 강가의 신, 평야의 신 등등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모든 영역을 관할하는 지역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역신이나 어느 한 종족만을 위한 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종족과 지역들을 다스리시는 우주적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강조한다.

셋째, 우주론에 있어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없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요소이다. 성경에서 영적 전쟁의 성격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에 악한 귀신들이 개입하고 있을 뿐이다(창 3:15; 엡 6:12; 계 12:1-6). 따라서 성경의 영적 전쟁은 타종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단순히 흑백선악의 대항적 구도로써 하나님과 사단의 이원론적 전쟁개념이 아니다. 성경의 영적 전쟁관은 천사와 귀신론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어두움을 대표하는 사단과 빛을 상징하는 천사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되는 영적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토스텐 뢰프스테트(Torsten Lööfstedt)는 로마서에 나타난 악의 기원 문제를 다루면서, ‘과연 육체의 정욕은 인간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가?’에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그가 로마서를 통해 우주론에 있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이원론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실상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부분(16:20)에서 사단을 한 번만 언급한다. 만일 바울이 우주론적 이원론의 세계관 특징을 지녔더라면,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을 위해 악의 대적자로 전쟁의 싸움에 참여한 것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로부터 죄를 짓도록 종용하는 사단의 역할을 더욱 기대했을 것이다. 이런 사상을 바울이 로마교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⁸⁾

바울은 사단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사단에게 그의 신학에서 중심된 역할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전쟁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단은 로마서 8:38-39절에 나타난 천사들이나 다른 권세자들처럼 전능하지 않다. 그저 다른 피조물들처럼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⁹⁾

이처럼 바울은 사단이 당연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 사단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다른 본문은 고린도후서 12:7절만 보아도 명백하다. “Καὶ τῇ ὑπερβολῇ τῶν ἀποκαλύψεων ἵνα μὴ ὑπεραίρωμαι, ἐδόθη μοι σκόλον τῇ σαρκί, ἄγγελος Σατᾶν, ἵνα με κολαφίζῃ, ἵνα μὴ ὑπεραίρωμαι.(2Co 12:7)”(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4) Timothy Warner, *Spiritual Warfare* (Wheaton, IL: Crossway, 1991), 92-95.

5) Gailyn Van Rhee, *Communicating Christ in Animistic Contexts* (Grand Rapids: Baker, 1991), 20.

6) C. Peter Wagner,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in *Breaking Strongholds in your city* (Ventura, CA: Regal, 1993), 62-63; John Robb, “Satan’s Tactics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His Kingdom of Dark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10/4 (1993): 178.

7) Gerhard F. Hasel, “The Polemic Nature of the Genesis Cosmology,” *The Evangelical Quarterly*, 46 (1974), 85-90.

8) Torsten Lööfstedt, “Paul, Sin and Satan: The Root of Evil according to Romans,” *Svensk exegetisk årsbok* 1 (2010): 111.

9) Ibid., 121.

고 내 육체에 가지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동사는 ‘ἐδόθη’(was given me)¹⁰⁾이다. 이 용어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단의 존재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수동태 동사인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사단의 사자가 자기를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는 사단의 사자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고백한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통을 ‘ἐδόθη’를 사용함으로써 사단에 의한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음을 표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 제임스 던(James D.G. Dunn)은 구약성경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적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동하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¹¹⁾라고 명확히 언급한다. 또한 네일 포시스(Neil Forsyth)는 “바울은 사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본문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미가엘과 전쟁을 치르는 형체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언급한다”¹²⁾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단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존재로 묘사하고,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시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으로 설명한 것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바울신학의 바탕은 SLSW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단이 하나님의 대적자(Counterpart)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맥락에서 SLSW가 강하게 주장하는 중보기도, 능력대결과 귀신들림 등과 같은 신학적 쟁점들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교계원로의 발언>

제2의 3·1운동 일어나야 할 때

이종운 목사(미래한국 상임고문)

webmaster@futurekorea.co.kr

1919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700만이었다. 그중 기독교인은 22만 정도였으니 인구 비례 1.3%에 불과했다. 그러나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의 20%를 넘었고, 기소된 피고인은 24.3%, 수감 및 기소된



이종운

이들의 수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은 시절에 여성 입감자의 86%가 기독교인이었고, 독립 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3·1 만세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고 일으킨 거사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경건주의와 보수 신앙에 의해 선교된 교회로,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을 통해 정착된 교회였지만, 그 신앙 자체가 민족적·사회적 구조 안에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뜻 깊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것은 신앙이 사회화했다는 변질된 형태가 아니라, 경건한 성경적 신앙이 내연(內燃)할 때, 그것이 역사적 정황의 요청에 따라 민족이나 사회의 환경을 현상화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런 외연(外延)의 형태였다. 3·1운동은 일제 총독정치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전도, 교육, 의료, 종교서적 출판자유, 소유권 문제 등을 주장하고 마침내 일제의 행정적 도덕악의 조장 철폐 및 한국교회의 도덕적 개혁을 촉구하는 파급 현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기도회·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매서운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강추위 속에서 기독교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모인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에 걸려 그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북핵 사태는 너무도 심각하다. 이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이나 6·25 전쟁 발발에 버금갈 정도로 중대한 사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고 우리의 국가안보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반(反)인륜적, 반민족적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눈치만 보면서 가면 한국은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어 그들의 온갖 협박에 굴복하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굴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도 6·25 전쟁 때도 목숨 걸고 지킨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를 허망하게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종북 좌파와 그 동조자들의 평화협정이 해법이라는 감언이설에 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자는 제안과 함께 미군 철수를 요구하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의 안보를 해체 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적화통일 원칙을 줄기차게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을 추구하여

10) ‘ἐδόθη’는 ‘δίδωμι’(to give)의 직설법(indicative), 부정과거(aorist), 수동태(passive), 3인칭단수(3rd person singular) 동사임.

11) James D.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37-38.

12) Neil Forsyth, *The Old Enemy: Satan and the Combat Myt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260.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1991년 12월 13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폐기되었음을 선언하고 미국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협의에 나서야 한다.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북핵을 폐기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 북의 위협이 눈앞에 닥쳐온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과 후손을 위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여야는 대북관계를 전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남남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북핵 폐기를 위해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래한국

<기독교인의 정치시도>

기독교자유당 63만 표 선전했지만... 높은 현실의 벽 기독교정당 원내진입 실패 원인



기독교자유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1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 설치된 '기독교자유당 20대 총선 개표방송 상황실'에서 원내진출 무산 소식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기독교정당이 20대 국회 원내진입에 실패했다. 기독교자유당은 정당득표율 2.63%(62만6550표)를 얻으며 역대 선거보다 선전했지만 원내진입 하한선인 3%에 이르지 못했다. 기독교당이 0.54%(12만9871표)를 획득, 표가 분산되면서 결국 기독교정당의 이름으론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기독교정당은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매번 교계 전체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이번에 등장한 기독교자유당과 기독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14일 "신앙적 열정과 세상에 대한 염려를 정치적 움직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독교 내에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

회장과 한국교회연합 조일래 대표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기독교자유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도 한국교회 다수의 힘이 실리진 못했다. 공감대 획득을 위한 과정이 생략되면서 기독교자유당과 기독교조차 하나 되지 못했다. 두당이 힘만 모았다면 3%를 넘어 비례대표 1석을 얻을 수 있었다. 한 기독교 의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소욕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던 것 아니냐"며 "분열 때문에 단 한 명도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계 내부의 분열과 이로 인한 부정적 인식 등이 겹치면서 기독교정당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선택 대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일반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당'의 이미지를 주기에는 당의 정책도, 당을 대표하는 후보 일부도 함량이 부족했다.

여론조사기관 지앤컴리서치 지용근 대표이사는 "기독교당과 직접 관련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들에게 기독교정당은 아예 '구매고려군'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을 우려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이슈화에는 성공했지만 표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주요 정당들은 정치·경제 개혁 등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기독교정당은 이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동성애·이슬람 문제만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목사들이 동성애, 이슬람에 대해 느끼는 위기의식을 평신도들은 그만큼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일반 성도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목회자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희송 청어람아카데미 대표는 "유력한 교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교회와 현실정치의 관계, 기독교정당의 필요성과 가능성,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등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한편 기독교자유당을 조직한 전광훈 후원회장은 "기독교자유당을 지지해 준 63만명과 함께 미래 대한민국을 바꿀 1000만명 회원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차기 총선 재도전의사를 밝혔다.(국민일보 김나래기자 narae@kmib.co.kr)



2016년도 신·편입생 모집(일반전형)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철저한
성경언어교육에 기초한 주석-설교 훈련”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른
신학교육의 산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 내용(신입, 편입) - “사회복지학 신설”

2. 특징:

- ① 성경언어 강화를 통한 성경 주석 특성화
- ② 직장인을 위한 수업 운영
- ③ 지방학생 기숙사 제공
- ④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7분 거리
- ⑤ 다양한 장학 제도(성적, 복지, 단독목회, 원우가족, 근로, 특별 등)
- ⑥ 타 교단 학생으로 본 교단에서 목회를 원할 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도록 함

3.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b.ac.kr

과 정		인원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박사과정 (Ph.D.)	-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0 명	 1.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 6월 13일(월)~7월 5일(화) 전형일: 7월 6일 2. 전형방법 ① Th. M./ M. Div./ M. A.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Ph. D. - 서류전형(1차) - 영어 및 전공시험(2차) - 면접(3차) ※ 성경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 '성경의 문학', '성경의 보건학', '성경의 경영학', '성경의 건축학', '성경의 역사관', '존 밀톤의 실낙원에 나타난 구원관', '토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에 나타난 인간이해' 등을 연구하는 과목임. 4. 평생교육원의 특징 - '기독교상담연구반'은 매 학기마다 <u>1개 자격증</u>을 취득할 수 있음 - '평신도조직신학교사반'은 <u>구역장 교육</u>에 매우 좋음 - '목회자 주석-설교반'은 <u>설교 향상</u>에 크게 도움이 됨
신학석사과정 (Th.M.)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0 명	
목회학석사과정 (M. Div.) 목회학연구과정 (M. Div. eq.)	목회자 양성 과정임	0 명	
석사과정 (M.A.)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0 명	
평생교육원	-기독교 상담연구반 - 조직신학 교사반 -목회자 주석-설교반	00 명	